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638호 2006년 12월 27일 수요일

절구경 않겠다는데 돈 내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불구 사찰측 "매표소 못 옮긴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 관람료(사찰 관람료)만 징수되지만, 공원 내 사찰들은 현재처럼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탐방객과 마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탐방객들은 등산만 할 뿐 사찰을 견학하지 않는데도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사찰 측은 대부분 등산로가 사찰을 거치게 돼 있어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곳은 ▲지리산 쌍계사·화엄사·천은사·연곡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 ▲월출산 도갑사 ▲변산반도 내소사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계룡산 동학사·갑사·신원사 ▲한려해상 보리암 ▲설악산 신흥사·백담사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오대산 월정사 ▲주왕산 대전사 ▲치악산 구룡사 ▲소백산 희방사 등 15개 국립공원 22개소다.

이들 공원 내 사찰은 1천600원~2천2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문화재 관람료도 대신 걷고 있다.〈표〉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내년부터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의 매표소는 탐방지원센터로 개조할 계획이다.

사찰 측은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까지는 공원 입구나 현재의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지리산의 경우 사찰들이 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기존의 매표소를 무상 임대받아 관람료를 징수할 예정이며, 월출산 도갑사는 공원 입구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건물을 설치해 관람료를 걷는다는 계획이다. 내장산의 사찰들도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을 방침이다.

■광주·전남·북 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현황 〈단위:원〉

공원명	사찰명	징수요금		
		계	공원입장료	문화재관람료
지리산	화엄사	3,800	1,600	2,200
	연곡사	3,200	〃	1,600
	천은사	〃	〃	〃
	쌍계사	3,400	〃	1,800
내장산	내장사	3,200	〃	1,600
	백양사	3,400	〃	1,800
월출산	도갑사	3,000	〃	1,400
변산반도	내소사	3,200	〃	1,600
덕유산	백련사	〃	〃	〃
	안국사	〃	〃	〃

탐방객들은 그러나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사찰을 구경하지 않더라도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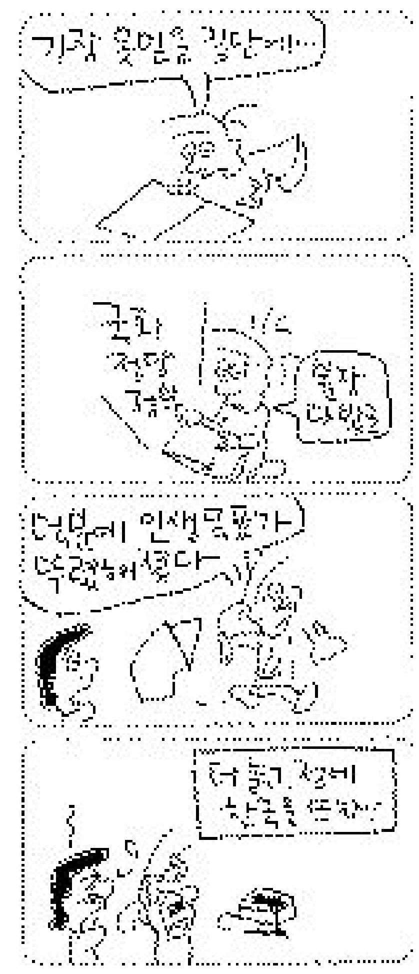
지리산의 경우 올 현재 94만9천여 명의 탐방객이 입장했으며, 내장산과 월출산은 각각 26만7천여 명과 26만8천여 명이 찾았다.

도갑사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찰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면서 "다른 공원 내 사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19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으며, 1990년 이후 분리 징수가 추진됐으나 사찰 측에서 '산문(山門) 폐쇄'로 반발해 무산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눈참 〈7012〉 김종두



동아시아 철새들 최고 2,470km 비행

동아시아 철새들이 한반도를 기착지로 직선거리 최고 2천470km 이상을 비행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6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노랑발갈매기'는 러시아 바이칼호·몽골 북부·중국 동북부·러시아 극동 등지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지난해 5월 몽골에서 방사한 개체가 같은 해 12월 13일 홍도에서 발견됐다. 노랑발갈매기의 번식지인 몽골에서 홍도까지는 직선거리로 2천470km다.

'쇠개개비'는 2004년 10월24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가락지를 부착, 방사한 뒤 9일만인 11월3일 홍도에서 포획돼 한반도를 거쳐 중국 등지로 1천460km 이상 이동하는 사실이 관찰됐다. 쇠개개비는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우수리,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중국 남부·타이·미얀마에서 월동하는 종이다.

'알락꼬리쥐발귀'는 캄차카·오호츠크해 연안·사할린·일본 북부에서 번식하고 필리핀·보르네오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지난 8월15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가 25일 1천500km 떨어진 홍도에서 발견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목욕탕 가던 모녀 인도 돌진 차량에 숨져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박모(여·42)씨와 딸 조모(9)양 등 2명이 인도를 덮친 '78저 72XX호'(운전자 노모·45) 로디우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딸 둘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던 중이었으며 함께 있던 조양의 언니(12)는 뒤따라 걷고 있어 화를 면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한국시멘트 주식 취득 대법원서도 무죄 선고

회사 공금을 빼돌려 한국시멘트 주식 일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N산업 대표 겸 한국시멘트 부회장 최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6일 한국시멘트 주식 취득과 관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산업 대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씨가 전 대표 이모(50)씨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식이 범죄수익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기 어려웠고, 취득 전 수차례 법률 검토를 한데다 시가와 비교해 주식을 특별히 낮게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무죄가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N산업 대표 최씨는 회사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한국시멘트 주식 일부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2004년 2월 한국시멘트 주식 38%인 82만여 주를 186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26일 한 운전자가 쾌척한 대형 돼지저금통을 뜯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돼지저금통에 이웃사랑 가득

돼지저금통에 세밑 추위를 녹이는 온기(溫氣)가 담겨 있었다.

26일 오전,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 대형 돼지저금통이 배달됐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운전자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요금소에 맡긴 것이다. 안에는 ▲10원짜리 63개(630원) ▲50원짜리 63개(3천150원) ▲100원짜리 364개(3만6천400원) ▲500원짜리 40개(2만원) 등 530개의 동전(6만180원)이 가득 차 있었다. 목포·광주·순천 요금소에는 지금껏 동전 7천560여만원이 모였다.

자선냄비 등에 11개 기부 '사랑의 체감 온도탑' 35도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모두 11개의 돼지저금통이 기부 됐다. 70대 할머니와 고사리 같은 두 손의 어린이들이 건넨 '돼지'의 뱃속엔 1만~20여만원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지난 12일부터 내걸린 냄비엔 1천420여만원이 답지했고, 100만원을 보탠 익명의 기부자도 2명이나 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옛 도청 앞 광장에 세운 '사랑의 체감 온도탑'은 26일 현재 35도(4억4천여만원)까지 올라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농촌 빈집털이범 휴대전화 추적 검거

쌍나팔

○…여수시 소라면 일대 빈 농가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자료 때문에 덜미.

○…26일 여수경찰에 붙잡힌 김모(25·주거부정)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소라면 오모(59)씨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넣어 둔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 소라면 일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기지국에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소재를 파악했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